

# 지역을 변화시키는 에너지 충전소 대전시민아카데미

글 · 양지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홍보실/ yangji@kdemo.or.kr  
사진 · 염동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홍보실/ dhyeom@kdemo.or.kr



“사람의 마음은 본래 저절로 즐겁다. 배움이란 이 즐거움을 배우는 것이다. 즐겁지 않다면 배움이 아니고, 배우지 않는다면 즐겁지도 않다. 즐거운 연후야 배운 것이고, 배운 연후야 즐거운 것이다. 즐거움이 배움이고 배움이 즐거움이다! 아아! 세상의 즐거움 중에 이 배움만한 것이 있는가? (왕심재 樂學歌)”

배움의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배움의 즐거움, 지식의 기쁨이 사라진 학교를 대신해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배움터로 사람들의 발걸음이 향하고 있다. 비단 서울 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그런 움직임은 활발하다. 그런 배움터 중 한 곳, 대전시민아카데미를 찾았다.

간판을 찾느라 한참을 두리번거렸다. 둔산초등학교 앞 건물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없다. 건물 입구 왼편에 있는 조그만 팻말 하나를 겨우 찾았다. 그런 단출함

은 사무 공간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강의실이 두 개, 그 사이에 있는 사무 공간. 강의실 벽을 두르고 있는 책장과 빼곡한 책들이 유일한 장식이라면 장식이다.

“강의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불편한 곳이란 얘기를 많이 해요. 플래카드도 없고 간식도 없고 난방도 최소화하고 강의 이외의 모든 건 가장 최소화하려고 해요.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필요한 강좌를 개설하고 단 몇 사람이라도 더 들을 수 있게 하려고요.”

대전시민아카데미 김영화 사무국장의 말에는 오랫동안 교육 강좌를 준비해온 경륜이 묻어났다. 꼭 필요한 부분에 힘을 집중하고 형식적인 부분은 가능한 줄이는 선택과 집중이 뛰어났다. 그랬기에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2005년 문을 연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강좌를 지속할 수



있었으리라. ‘희망의 인문학 강좌’, ‘청소년 인문학 아카데미’, ‘동양고전’, ‘정치철학 아카데미’, ‘불교철학 아카데미’, ‘자본론’ 등 다양한 기획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대전시민아카데미는 이제 대전 지역의 인문학 교실로 조금씩 그 자리를 넓혀가고 있다.

6년 전 문을 열게 된 당시의 화두는 ‘소통’ 이었다.

“한 때,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화두가 유행했었잖아요.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루어졌는데 실질적 내용적인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사람들 간의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 아무래도 민주시민교육,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교육이 부재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서로 말은 통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출발했죠. 저 사람을 이해하려면 저 사람이 쓰는 언어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사람들과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알려주는,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을 알게 되는 그런 대

화, 소통의 교육이 절실하다고 느꼈죠.”

## 중요한 건 수치가 아니라 활동의 내용

지금 이곳에선 다양한 봄 강좌가 진행 중이다. 월요일엔 ‘동양고전산책’ 시간이, 수요일엔 ‘자본론 읽기’ 강좌가, 목요일엔 ‘정치철학 아카데미’가, 금요일엔 ‘클래식을 듣다’ 강좌가 열린다. 토요일엔 ‘청소년 인문학 아카데미’가 있다. 낮 시간엔 주부들을 중심으로 한 밴드 교실도 열린다.

이밖에도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나누는 화요모임, SF 책을 읽는 모임, 교양서적 읽기 독서모임, 대전지역 작가들의 인문학 모임, 인권 공부 모임 등 작은 소모임들이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만들어졌다 없어진다.

“처음에는 3명, 5명 앉아서 강의 들었던 적도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25명~30명은 되요. 한 5년 하나까 강의의 질이 보장이 된다는 믿음이 어느 정도 생겨났나 봐요. 필요한 강좌가 있으면 시작을 하죠. 어떤 강의냐가 중요하고 누가 듣고 어떻게 변화하느냐가 중요하지 그 강의에 몇 명이 오나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중요한 건 수치가 아니라 활동의 내용이지요. 그래도 마음속에 마지노선은



대전시민아카데미  
김영화 사무국장



있죠. 10명은 와야 한다는(웃음). 한 달에 한 번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거기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이 얘기가 되지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제안해 주시기도 해요.”

모든 강좌는 유료로 진행된다. 강좌 1회당 10,000원 정도의 참가비를 받고 있다. 250여 명 되는 후원회원들이 정기적으로 꾸준히 내는 후원금으로 공간 임대료와 관리비를 충당하고 있다. 빠듯한 살림살이다.

그런데도 궁할 때면 어디선가 늘 해결의 문이 열렸다. 행한 강의실은 회원들이 기증한 책들로 서재처럼 꾸며졌고 작년엔 이름을 밝히지 않는 분이 천만원을 기부해줘 연구 공간을 마련하고 참가비를 낮추는 데 큰 보탬이 됐다.

토요일에 진행되는 ‘청소년 인문학 아카데미’는 4년 동안 꾸준히 진행한 프로그램이다. 책을 보고 얘기하고 글을 쓰고 토론하며 세상과 나와 자연에 대한 시선을 넓혀가는 과정이다.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나누어 중학생은 매주, 고등학생은 격주 토요일에 진행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실질적인 인문학 교실인 셈이다.

이 프로그램을 이끌어 온 두 분 선생님은 꽤 유명해져

학교, 공공도서관 등에도 강의를 나가신다고 한다. 김영화 사무국장은 이런 강사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한단다.

“청소년 인문학 교실을 꾸준히 하면서 이런 교육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지역아동센터 등에 나가 강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희 대전시민아카데미가 그 모델을 보여주는 거죠. 인문학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교사 양성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기가 힘들거든요.”

### 연구 공간의 마련, 지역 연구자를 키워내는 인큐베이터

강사에 대한 고민은 늘 풀리지 않는 숙제다. 가능한 지역의 인적 기반을 최대한 살리려고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단다. 대전은 과학연구단지도 있고 대학도 많다. 그런 인적 기반이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에너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을까하는 고민이 또 작은 싹을 틔웠다.

“지역의 사람을 쓰려고 했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강의를 하려면 강사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게 확인이 안 되니까



요. 서울에서 사람을 부르려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러면 지역도 성장하지 않잖아요. 5년 정도 하니까 강사에 대한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이젠 따로 박사나 박사 수료자들을 위한 연구 공간을 만들었어요. 딱 공간 임대료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지만요. 젊은 석, 박사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이 지역의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 전문가로 성장해 심포지엄 등에 패널로 직접 참여하거나 지역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게 꿈이죠.”

서울 중심성을 벗어나려는 시도에는 고개가 끄덕여졌다. 아직 연구 공간이 만들어진 지 몇 개월밖에 안됐지만, 지역의 연구자를 키워내는 인큐베이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지역의 교육, 지역의 연구기관들이 살아나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지역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는 윤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전에서 서울까지 KTX로 한 시간이잖아요. 강의 들으러 서울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역장이 무너 집니다. 우리 한계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지역에서 만들어내지 못한 역량 부족이기도 하고요. 지역자체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연구단지가 바로 여기서 10분 거리가거든요. 이게 지역사회와 소통

이 안 되요. 이곳의 유명하신 분들이 서울에서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좀 더 다양한 인적 교류가 지역 내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대전이 가진 인적자원 그리고 타지에서도 오기가 좋은 지리적 장점을 잘 살리면 더 좋은 교육들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 봅니다.”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이 진정한 배움의 즐거움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유쾌하고 발랄한 에너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본다. ~~5월~~